2026.10.20 · 전날 독해

# 얼마나 밀어내는가

오늘 먼저 읽을 글은 데이터센터 투자가 다른 투자를 밀어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거시경제의 밀어내기 논쟁을 읽고 나면, 같은 날 올라온 만화가게 인터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 팔려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밀어내기는 언제나 크기와 반사실의 문제입니다.

---

**새 글 12편 전문 독해, 6편 분석.**

---

대상은 10월 19일 00:00~23:59 KST에 수신된 새 글입니다. 본문을 모두 읽은 뒤 골랐습니다. 출처의 주장과 제 해석을 구분하고, 직접 재현하지 못한 수치에는 그 범위를 밝힙니다.

타바록의 「아니오, 데이터센터가 다른 투자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크루그먼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크루그먼이 10월 6일 「하이퍼스케일러 붐이 다른 투자를 밀어내고 있다」는 글을 쓴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타바록의 첫 지적은 크기입니다. 래트너의 그래프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는 연율 510억 달러인데, 밀려났다는 다른 투자는 1,200억 달러입니다. 표준 대부자금 모형에서 밀어내기는 일반적으로 1대 1보다 작으므로, 510억의 지출이 1,200억을 밀어냈다는 그림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적은 그래프의 단위입니다. 크루그먼은 기술 투자와 다른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을 비교하는데, 비중 그래프는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기계적으로 내려갑니다. 타바록이 같은 자료를 실질 달러로 다시 그리면 2023년 2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실질 기술 투자는 약 46% 늘고 다른 실질 투자도 약 3% 늘어 시작 수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도표이며 제가 원자료를 다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도표가 밀어내기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투자가 AI 붐이 없었더라면 더 빨리 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절대적 밀어내기에서 반사실 대비 상대적 밀어내기로 옮겨갔고, 후자는 그래프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금리의 시기입니다. 실질 금리 상승의 대부분은 AI 투자 붐 이전에 일어났다고 타바록은 씁니다.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이 2021년 말 -1.00%에서 2022년 말 1.49%로 오른 것이 붐 이후의 상승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 금리는 AI 지출이 집중된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서 올랐습니다. 그의 대안적 서사는, 관세와 불확실성, CHIPS·IRA 보조금의 소멸이 다른 투자를 약하게 만들었고 AI 투자는 오히려 전체 투자를 떠받친 밝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사도 반사실을 포함하므로 그래프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논쟁의 양쪽이 제시한 것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그림이 단위와 시점에 따라 반대 교훈을 준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집니다.

글자 그대로의 밀어내기는 TCJ의 비자로 코믹스 인터뷰에 있습니다. 조지아 애선스에서 36년간 만화를 판 데블린 톰프슨의 가게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팔렸고, 그 자리에 럭셔리 학생 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만화가게가 삼십 년을 버틴 것도 드물지만,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이 가게를 끝낸 것도 흔한 일입니다. 그는 재고의 상당 부분을 옮겨 새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짚는 직접시장의 두 단절은 1995년의 마블과 2020년의 DC입니다. 연속성 이벤트와 변형 표지, 투기 판매로 부족한 판매를 메우려 한 결정들이 소매상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투기 게임을 하지 않아 어느 정도 비껴갔지만, "사려는 사람이 적으니 한 사람에게 스무 권씩 팔겠다"는 논리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변화는 크라우드펀딩입니다. 독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사고 보상을 원하므로 소매상이 낄 자리가 줄고, 열 권을 팔 수 있어도 한 번에 팔 수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는 지역 작가들의 자체 제작 진과 만화를 계속 들여놓고, 사회관계망에는 작가가 자기 작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사람이 만든 만화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 주는 것이 그의 유통업입니다.** 이 인터뷰는 한 사람의 기술이므로 산업 통계로 읽지 않았습니다.

노동 시장의 다른 자리에서는 학문직 제안의 답변 기한에 관한 Leiter Reports의 글이 있습니다. 한 달은 합리적이고 2주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필자의 답입니다. 기한이 짧은 제안은 경쟁 학교의 채용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강요하려는 전략인데, 30년 가까이 지켜본 경험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 회피적인 지원자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해도 관계가 나쁘게 시작하고 몇 년 안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에 실린 일화가 압축합니다. 12월 초에 한 달 기한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 한 달이 겨울 방학과 정확히 겹쳐 아무 학교도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었고, 연장을 요구하자 학장은 자기 학교는 준비가 됐으니 그 이득을 누리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는 결국 떠났습니다. 이것은 필자의 경험칙과 한 독자의 일화이며 조사가 아니지만, **기한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재야 한다**는 원리는 널리 쓸 수 있습니다.

종교 연재에서는 Experimental Theology의 5부가 4부의 구원론을 더 밀고 갑니다. 정화의 길, 조명의 길, 결합의 길이라는 삼중 길은 가톨릭·정교회의 토양에서는 구원 그 자체의 여정입니다. 단테의 『연옥』에서 일곱 단계를 오르며 죄가 정화되고, 그 순수함이 신을 볼 능력이 된다는 문학적 형태가 있습니다. 칭의를 법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개신교 공간에서는 이 길이 구원과 분리되어 선택 사항이 됩니다. 필자는 실천이 옮겨질 때 원래의 목적과 논리가 흐려지는 것이 이식 충격이라고 정리합니다. 이것은 연재 필자의 유형화이며 교파 교리사 전체의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앞선 회차들과 함께 읽으면, **같은 수행도 어떤 구원론 안에 놓이느냐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논점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철학 소식 두 개를 덧붙입니다. 슈비츠겔의 새 책 『AI and Consciousness: A Skeptical Overview』이 케임브리지에서 10월 19일까지 무료로 열렸습니다. 책 페이지는 확인했지만, 본문이 "영국 시간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마감은 이 보고를 읽는 시점에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웬의 독서 목록에서 로젠블랫 전기 『Perceptron』과 제임스 케이시의 UPS 창업사를 다룬 마크 레빈슨의 책을 짚어

둡니다. 1957년에 퍼셉트론을 만들고 가중치 조정의 원시적 형태를 고안한 인물의 재평가와, 물류의 경제사는 관심 축에 닿습니다. 책 자체는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들을 묶으면, 밀어내기는 주장의 크기만큼 증거의 크기를 요구합니다. 510억이 1,200억을 밀어냈다는 그림은 크기에서 무너지고, 부동산에 밀린 만화가게는 크기와 무관하게 실제입니다. 짧은 기한이 지원자의 선택지를 밀어내는 것은 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밀어내는지 묻기 전에, 얼마나 밀어내는지를 먼저 재야 합니다.**

꼭 읽을 글은 데이터센터 반박 글과 비자로 코믹스 인터뷰입니다. 앞의 것은 그래프 논쟁을 읽는 훈련이고, 뒤의 것은 직접시장의 역사를 한 소매상의 좌표에서 듣는 기록입니다.

독해 범위를 밝힙니다. 데이터센터 논쟁의 수치와 재도표는 타바록의 것이며 원자료를 다시 그리지 않았고, 크루그먼의 원문은 존재만 확인했습니다. 만화가게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담입니다. 답변 기한의 조언은 필자의 경험칙입니다. 신학 연재는 필자의 유형화입니다. 슈비츠겔 책의 무료 열람은 마감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글을 연결한 판단은 제 해석입니다.